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LEGAL PROBONO

법 률 공 익 활 동

지평의 구성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수행하는 소송 · 자문 등 법률공익활동은 소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외하면 전부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 지평의 구성원이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합산하면 총 8,308.45시간에 달하며, 이를 전문가의 시간당 보수로 환산하면 5,867,958,900원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이룬 제도개선과 소수자 권익증진 성과의 가치는 위의 단순 환산 가치를 크게 넘어섭니다.

장애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 · 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수행 • 시 ·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공익소송 수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신길역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주요 지하철역사 승강기 설치 요구 차별구제소송 수행 • 장애인 선거권정보접근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인강학교 폭력사건 피해자 형사사건 지원 • 장애인 작업장 내 인권침해 등 형사사건 지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자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상시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운동 •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 운영 • 「국가공무원법」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규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수행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운동 •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및 소송 수행 •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 운동

두루는 9개의 장애단체, 아동단체, 법률가단체로 구성된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과 연대하여 모든 아동이 놀이터 접근과 놀이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 제도로는 휠체어그네와 같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두루는 5월 30일 통합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팝업 통합놀이터를 위 추진단과 함께 열었고,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및 공동주관을 맡았습니다.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지평과 두루는 2016년 장애인 시설 접근권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모순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개선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들을 대리하여 카페와 편의점, 호텔업체를 상대로 직접적인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올해도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탈시설, 활동지원, 장애유아 교육권 등 법 개정 운동

지평과 두루는 탈시설 연구와 소송을 통해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안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TF를 꾸려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대상임에도 교육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유아들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지평과 두루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두루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인권에 관심이 많은 지평의 변호사들이 법률상담 및 지원, 매뉴얼 제작, 토론회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두루는 전국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의 수용자로부터 직접 자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아, 수용자자녀 및 양육자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비 · 생계비 · 의료비 지원을 하였고, 수용자자녀 인식개선 영상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한 400건에 가까운 수용자자녀 사례를 바탕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지평과 두루는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법률교육'은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구체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에는 지평과 두루 변호사 10명이 참여하여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말과 법', '민주시민의 덕목',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이야기', '불법다운로드, 어디까지 해봤니(지적재산권)', '꺼진 글도 다시 읽자(법문서작성의 이해)', '소년법', '과학과 법률' 7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앞으로는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위한 소송

두루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와 함께 해외입양의 관행과 역사를 되짚어 보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잘못된 해외입양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해외입양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되었다가 갑자기 추방되어 한국 땅에서 가혹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입양기관이 고아가 아니었던 의뢰인을 기아로 신고해 기아호적을 창설하고,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리입양제도를 유지하고, 입양 이후에도 재외국민의 보호를 게을리한 점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 ·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아동 · 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국제연대활동,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주요 활동

•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운동, 법률매뉴얼 집필 •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위한 소송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및 무고사건 피해자 대리 • 아동학대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대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 · 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대응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활동 • 「입양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입법운동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아동 · 청소년인권기본법」 입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연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 및 운동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 및 운동 •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운동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활동 • 애란원 법률교육, 법률자문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 찾아가는 법률교육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이브더칠드런,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소셜벤처는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인 까닭에 법률 리스크가 크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9년 소셜벤처의 사업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셜벤처를 매칭하는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을 하였습니다. 20개의 소셜벤처와 매칭된 40여 명의 변호사들은 소셜벤처들의 '법률주치의'로서 활발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권경영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 수행

지평과 두루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경영지표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집중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업에 특화된 인권경영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직후에는 대상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별 인권영향평가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인권경영과 사회적가치경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법률 및 인권 교육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다수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김용진 변호사가 소셜임팩트를 지향하는 조직과 단체들이 모임인 임팩트얼라이언스에 감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법률지원 • 인권경영지표 개발 연구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 •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 금융취약계층 지원 단체(주빌리은행,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 대한 법률자문 • 비정상대출(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 사회적기업 전문투자신탁 펀드 조성 등 임팩트 금융 관련 법률자문 • 협동조합 제도개선 연구회(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참여 • SIB 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입법운동 • 유럽연합 협동조합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개선 방향 연구 •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대상 법률 및 인권 교육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주관 캐나다 사회적 금융 연수 참여

사회적경제 · 기업공익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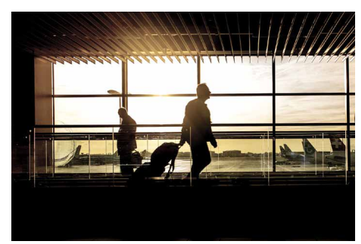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 이주민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난민인정신청 조력,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리 • 난민인정신청 과정에서의 통 · 번역 제도 개선 관련 인권위 진정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신청 등 외국인 구금 해제 조력 • 가족결합권, 아동구금 관련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 제주 지역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및 공항만 난민신청자 법률 조력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소송 대리 •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GCM) 백서 작성 • 공항 구금 난민신청자 가족 난민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국제 NGO의 기부 및 모금 관련 국내법체계에 대한 법률자문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및 법률자문, 서남권글로벌센터 정기 상담 및 법률자문 • 혼인이주 여성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 • 이주민 대상 법률 및 통번역 교육, 선주민 대상 이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법률 교육 • 난민인권센터 지원, 난민 네트워크 참여 및 난민 혐오 대응 실무그룹 참여 •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참여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시민사회 대응 참여 • 유엔 각종 인권관련 이사회 대한민국 심의 대응 및 개인 진정



구금 난민 등 취약한 상태의 난민 대리 및 제도 개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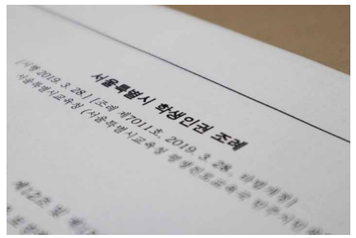
지평과 두루는 287일만에 인천공항 밖으로 나온 난민 가족을 비롯,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취약한 지위의 난민들을 조력하였습니다. 그중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구금된 사례도 있었고, 한국의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1년 넘게 구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루는 구금 외에도 사회적약자의 지위에 있는 난민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본심의 대응 및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GCM) 번역

두루는 9월에 열린 아동권리협약 본심의 대응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국내에서는 심의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감동, 동천 등과 함께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의 번역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콤팩트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기구, 제도 등을 국내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통번역 교육

두루는 이주민센터 친구, 수원이주민센터 등에서 이주민을 한 법률 통번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주민이 민사, 형사, 가사 등 사법절차에서 적절한 통역을 지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두루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통번역을 담당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 관련 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합헌결정

지평과 두루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대리하여 수행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헌법소원에서, 학교 내 차별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형자의 인권증진 활동

두루는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형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두루는 여름철 폭염에 대해 대책이 없는 교도소 수용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서적까지도 반입을 불허하는 불합리한 지침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루는 교도소 수용환경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방문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지뢰피해자 위로금 사건 승소 확정

두루는 과거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을 대리한 '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지뢰사고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었던 지뢰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타 공익 활동

지평과 두루는 선거의 자유, 집회 · 시위의 자유, 통일, 여성 인권, 군 인권 등 다양한 공익법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선거의 자유 / 선거기간 중 집회 · 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집회 · 시위의 자유 /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통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자문 • 여성 인권 /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 군 인권 / 군 훈련소 내 선거정보접근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인권 / 군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인권 / 군 복무 중 희귀질환 발병자 대리 국가유공자인정소송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기타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 기타 / 피보호감호자 임금청구소송 • 기타 / 수형자 의료권 침해사건 법률조력 • 기타 /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국가배상청구소송 • 기타 / 세월호 민간잠수사 보상금청구소송 • 기타 / 엄궁동 살인사건 재심청구 • 기타 /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및 위헌소송 • 기타 / 공익신고자 보호 • 기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위헌소송

공익법 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활동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공익법 영역에서의 변호사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익사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두루, 공익변호사 1명 추가 채용 • 한국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수행 및 정책토론회 주최 • 로펌 공익네트워크 간사단체 활동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사무국 참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및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아산나눔재단 자문

한국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

지평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후원을 받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두루는 한국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로 공익변호사단체의 성과와 의의, 공익변호사의 욕구를 담아낸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익변호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공익변호사로 개업하려는 변호사들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지평과 두루가 간사로 활동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수요와 변호사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사례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리노이주 P&A 기관의 제나(Zena Naiditch)대표가 참석하여 활발한 권익옹호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에서 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길을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국 변호사, 단체와의 교류

두루는 2019 PILnet Global Forum에 참석하여 한국의 공익활동 성과를 나누고 해외의 공익활동 사례를 배웠습니다. .또한 국내외 변호사 및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9월에는 공익변호사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 변호사들이 두루를 방문했고, 12월에는 공익변호사 단체를 연구하는 중국인 연구자가 두루를 방문했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향후에도 아시아의 공익변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함께 감동을 느껴요”

인터뷰 | 이경림 세움 대표

지평 · 두루와 활동을 같이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세움은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쉽온 1기로 참여했고,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참여 단체에 법률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를 논의하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지평 · 두루와 함께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법률전문성이죠. 소송과 자문에서 입법까지 법률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용자자녀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 연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도 되고, 가족들이 주변에 아는 변호사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에게 더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보편적 아동복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나마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인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용자자녀는 숨겨진 피해자로 법과 제도, 서비스가 전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보는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더욱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평 · 두루와 함께한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최근에 지평과 두루를 통해 연결된 수용자자녀가 있습니다. 난시, 근시, 원시, 사시를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세움과 연계된 병원에서 시력교정을 받고 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아이를 세우는 일에 법률가, 사회복지사, 의사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루의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다”

인터뷰 | 여연심 두루 후원자

두루와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두루가 만들어진 2014년, 지평에서 근무하며 두루의 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1년간 두루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했고요. 지금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가끔 물질로 후원하는 시민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루와 함께 하신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애란원과 관련된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애란원에서 법률 관련 강의를 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두루와 함께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법률지원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과정부터 양육 그리고 입양이 필요할 때에는 입양 절차까지도요.

두루를 더 알리기 위해 해 주실 조언이 있나요?

저도 여기저기 단체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단체 후원을 할 때에는 보통 충동적으로 했어요. 두루에서 하는 활동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힘든 활동이잖아요. 저같은 사람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활동이 쌓이다 보면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요.

두루의 오랜 후원자로서 후원자가 되실 분들에게 두루를 소개해 주세요.

후원자로서, 여기저기 두루에 후원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마 저 뿐 아니라 다른 후원자분들도 두루 덕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정말 좋겠네요.